


특허청

희망의 새시대
**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,
기업성장 전인**


73주년
창조경제
3'책'년 계획
 남게 들었습니다
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 장 김용선 042-481-8180 서기관 여덕호 042-481-8496 주무관 신혜영
	2015년 4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4월 26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생활의 참견? 발명의 참견!

- 오는 27일 김양수 작가와 함께한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 웹툰 공개-

특허청은 다가오는 「제50회 발명의 날」을 기념하여 김양수 작가와 함께 제작한 새로운 캠페인 웹툰 ‘발명의 참견’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

‘발명의 참견’은 발명이라는 소재를 일상생활에 접목해 누구나 발명에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4부작 웹툰으로, 27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포털사이트 다음(Daum)의 ‘만화 속 세상’ 코너에 연재될 예정이다.

27일 공개될 1화, <일상 속의 발명>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발명품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.

특히 김양수 작가의 전작에 주요 인물로 그려진 바 있는 실제 김 작가의 두 자녀 시우·시영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평범한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여 친근감을 높였다.

인기 웹툰 ‘생활의 발견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김양수 작가는 일상의

사소한 에피소드를 흥미롭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강점을 지닌 작가로, 이러한 탁월함이 본 캠페인 웹툰의 성격과 잘 호응하여 제작을 맡게 됐다.

본 웹툰의 마지막회는 「제50회 발명의 날」을 하루 앞둔 5월 18일에 공개되며, 발명의 날의 유래 및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곁들여 그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.

특허청 담당자는 “이 웹툰을 접한 우리 국민들이 발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, 누구든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전했다.



사진: 특허청 캠페인 웹툰 '발명의 참견' 1화 <일상 속의 발명>

붙임 : 웹툰 1~3화